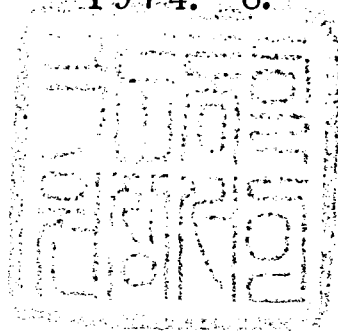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8.



연구책임자 : 조 순

目 次

I. 南北韓 經濟統合의 意義	3
1. 南北韓間 經濟的 接近	3
2. 經濟統合의 形態	4
II. 南北韓 經濟政策의 比較	8
1. 經濟政策의 基調	8
2. 經濟政策의 目標	14
III. 重要經濟發展指標의 比較	18
IV. 經濟構造의 比較	25
1. 生 産	25
2. 消費構造	32
V. 對外經濟去來 및 貿易	35
1. 對外經濟政策의 特徵	35
2. 貿易政策의 長短點	36
3. 國別貿易構造	39
4. 商品別 貿易構造	40
VI. 經濟統合에 따르는 利點과 問題點	50
1. 政治的 利點	50
2. 經濟的 利益	50
3. 經濟統合에 따르는 問題點	53
VII. 經濟統合의 戰略에 關한 提案	57

I. 南北韓 經濟統合의 意義

1. 南北韓間 經濟的 接近

70年代 初부터 突現된 南北韓間 政治 및 非政治的 對話의 進展에 따라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이와 平行하여 이러한 接觸을 뒷받침 할 수있는 行動을 取해야 할 必要性이 있게되었다.

經濟가 넓은 意味의 政治의 一部分이라는 點에서 兩地域間 經濟的 交流의 추진은 궁극적으로는 政治的 統一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消極的인 側面 以外에도 南北韓間 經濟的 接近, 나아가 經濟統合은 특히 두가지 點에서 좀더 肯定的인 役割을 할 수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后述하는 바와같이 現在 韓半島 內外的인 與件에 비추어 短期的으로 政治統一이 可能치 않을 경우 우선 經濟統合을 이에 先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即 政治的인 接觸이 對內外的인 變化에 敏感하게 反應을 보이는 反面 經濟的 接近은 보다 좀더 安定的이라고 할 수있으므로 政治的 統合을 위한 第一段階로서 經濟統合을 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經濟的 統合은 政治的 統一을 容易하게 하는 한 수단으로서도 利用 될 수있다. 또다른 하나는 經濟統合은 當事國間의 經濟的 實利와 直結되어 있기때문에 그自体만으로도 充分한 意義를 갖고 있다는 點이다. 經濟交流의 추진 與否 역시 政治的 對話에 依하여 決定되겠음은 물론이나 南北韓 統一이 지연되고 經濟統合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兩側은 利益을 取할 수 있다.

昨年末 北韓側の 南北調節委를 통한 政治的 對話의 一方的 中断 宣言이나 그后 各種의 도발행위로 因하여 經濟的 次元에서의 交流 可能性 역시 희박해진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對話의 再開與 否는 多分히 流動的이므로 對内外 事態의 進展에 따라 有利하게 判斷되면 北韓側은 언제라도 先制攻勢를 取 할 것이다. 特히 수 차례에 걸친 南北調節委의 會談過程에서 北韓側의 提議를 살피면 長期間 신중히 準備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데 對話中断 期間에도 이러한 作業은 계속 된다고 보아야겠다. 더구나 7.4 共同聲明 以后 73年 3月까지 北韓調節委 朴成哲의 發言이나 平壤放送 등 各種 「메스콤」에 依한 北韓側의 具體的인 提案을 檢討하면 兩地域間 經濟交流 論議에 對備하여 꾸준히 戰略을 構想하여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韓國도 兩地域間 經濟事情이나 經濟統合의 추진에 따르는 利·不利를 고려하여 좀더 肯定的이고도 積極的인 對案을 準備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2. 經濟統合의 形態

우선 南北韓間 適切한 形態의 經濟統合을 檢討하기 위하여 可能的한 類型을 살펴겠다.

1830年代 關稅同盟의 始初라고 할 수있는 독일關稅同盟 (Zollverein)의 탄생 以后 EEC의 登場까지 經濟統合기구는 一般的으로 다음의 다섯가지 類型으로 分類된다. 가장 初步的인 形態로서 會員國間 單純히 商品의 自由移動만을 目的으로 하는 自由貿易地域 (Free Trade Area)을 들 수있고 다음이 會員國들이 域外 第三

국에 대하여 共通關稅를 樹立 實施하는 關稅同盟 (Customs Union) 이다. 51年 유럽石炭鋼鐵共同體 (ECSC) 의 設立과 함께 새로히 登場한 概念이 세번째 統合 類型인 共同市場 (Common Market) 으로서 이는 關稅同盟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域內 會員國間 勞動이나 資本과 같은 生産要素의 流通도 自由化시킬 것을 目的으로 하고있다. 58年 形成된 유럽經濟共同體 (EEC) 는 經濟同盟 (Economic Union) 이나 經濟單一體 (Complete Economic-Union) 까지 指向하므로써 經濟統合의 概念을 한층 發展시켜왔는데 前者는 會員國間 經濟政策의 調整, 接近 내지는 統合, 后者는 各經濟部門에서의 對內外的인 單一共同政策의 樹立까지를 추구한다.

이러한 定義에 비추어 볼때 南北韓의 경우 長期的으로는 「經濟的 再統一」을 意味하는 用語로서 「統合」 (Integration) 이라는 概念을 그대로 適用하는 데에는 問題點이 있다.

엄밀한 意味에서 經濟統合은 二次大戰 後부터 시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努力은 아직까지 自由市場經濟體制를 採択하고 있는 國家나 地域間에만 限定되어 왔다는 點이다. 물론 經濟構造나 發展度의 相異가 經濟統合을 不可能하게 하는 要因은 아니며 그러한 例를 EEC - 아프리카諸國 또는 아프리카나 中南美諸國間 締結된 協定에서도 찾아 볼 수있다.

이와같이 經濟統合이 市場經濟體制 國家間에만 추진되어 온 理由는 「統合」의 취지가 무엇보다도 當事國間 人爲的인 經濟的 諸장벽을 除去하므로써 單一의 大市場을 形成하자는데 있기 때문이다.

即 會員國間 生産物이나 生産要素의 移動을 自律的인 市場機構에 맡기므로써 經濟的 效率性을 增大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中央當局이 모든 生産수단을 所有하고 경제계획에 따라 國內 生産, 消費, 分配를 決定하는 계획경제體制와는 原則的으로 兩立 될 수 없다. 한例로 OEEC나 EEC에 對항하여 東歐諸國間 設立된 相互經濟協力 理事會 (COMECON)가 60年代 수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不拘하고 아직껏 經濟協力の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이러한 限界性을 잘 說明하여 준다. 더구나 經濟體制가 相異한 國家間 經濟統合에 있어서는 더욱 더 制約을 받을 것임은 두말 할 여지가 없으며 로마조약이 EEC의 正. 準會員國 加入條件으로서 市場 經濟體制를 採擇하고있는 國家에만 局限시키고 있다는 事實에도 充分히 理解가 간다.

南北韓의 경우 이와같이 經濟體制가 相反된다는 點에 더하여 共通的으로 後進國이라는 制約이 追加된다. 先進國들이 經濟統合을 通하여 達成하려는 資源의 最適配分, 規模의 經濟實現 或은 競爭力의 強化등과 같은 目的보다는 後進國에 있어서는 급속한 工業化라는 經濟的 目標가 더 큰 比重을 갖고 있으며 이 點 南北韓이 다같이 例外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南北韓間 經濟統合의 實現에 있어서는 先進資本主義 諸國間추진되고 있는 傳統的인 模型들이 그대로 適用될 수는 없다. 前記한 다섯가지 類型을 단계별로 實現하기 보다는 이들을 同時에 混合한 特殊한 形態가 더 바람직한데 그理由는 南北韓의

경우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生産物 또는 生産要素市場이 다같이 왜곡 (Distortion) 되어 있고 또 政府의 對市場 介入幅이 크기때 문이다. 따라서 開發政策의 遂行範圍內에서 南北韓間 生産物이나 生産要素의 交流, 經濟, 技術協力 그리고 經濟政策의 調整 또는 接近을 同時에 期하며 時間의 경과에 따라 이를 深化시키며 그對象을 擴大해 나가는 이른바 水平的 經濟統合의 形態를 取할 수있다. 即 단계별 統合보다는 各단계를 同時에 可能한 部分부터 점진적으로 그리고 橫的으로 統合對象을 擴大시켜 나가는 一種의 「合意的인 分業體制」가 南北韓이 現在 處해있는 政治, 經濟, 實情에 더 適合 할 것으로 본다.

II. 南北韓 經濟政策의 比較

1. 經濟政策의 基調

戰后 4半世紀間 分斷된 狀態로 相反되는 政治, 經濟體制下에서 發展하여 온 南北韓 經濟는 우선 그政策의 根本的인 目標부터가 관이 하게 달려왔다. 62年 5個年 單位의 開發計劃을 實施하면서 부터 混合經濟的인 性格이 強化되기는 하였으나 原則적으로 自由市場經濟體制에 입각하고 있는 韓國經濟는 「自立的 工業化」나 國民生活水準의 向上과 같은 基調를 追求하여왔다. 反面 모든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前提로하는 強力한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體制에 기초한 北韓經濟는 「社會主義工業建設」이나 「自立的 民族經濟」의 實現과 같은 좀더 自給體制的인 工業化를 指向하고 있다.

即 지금까지 發展하여 온 過程을 綜合하여보면 兩經濟는 정도의 차이 문제이기는 하나 다음의 두가지 點에서 根本적으로 그目的을 달리해왔다. 그하나는 韓國이 創意的인 民間企業의 活動이나 消費者主權과 같은 市場經濟原則에 立脚하여 궁극적으로는 國民福祉의 向上을 期하여 온데 反하여 北韓은 「民族經濟」建設의 目的을 工業化와 함께 韓半島의 共產革命을 위한 政治·軍事의 力量의 우위를 確保하는데 두어왔다. 勿論 相對的인 比較이기는 하겠으나 韓國보다도 北韓의 경우 經濟政策을 政治目的 達成을 위한 한 수단으로 使用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社會主義國家中에서도 가장 獨善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린」式

命令經濟 (Command Economy) 體制를 挾하고 있는 北韓은 이러한 目的을 遂行하기 위하여 充分한 財源을 確保하고 있다. 例로 西方式의 GNP 概念으로 換算한 南北韓 生産規模를 對北하면 72年 韓國이 \$96.2億, 北韓이 \$38.4億으로서 約2.5倍의 差異를 보였다. 그러나 豫算의 對GNP 百分比는 韓國이 18.4%, 北韓이 85%로서 絶對額에 있어서 后者가 前者를 約2.5倍 증가하고 있다. 南北韓間 60年代 國民所得과 消費 및 投資支出의 추이를 나타내는 表1~2도 이러한 立場을 잘 要約하고 있다. 租稅收入이 歲入豫算의 大宗을 이루는 韓國과 去來收入金 및 國家企業利益金이 主要 세입원인 北韓間 세입구조의 顯격한 차이는 國民所得 (N.I) 或은 個人所得 (P.I) 의 對GNP 구성비에 있어서 큰 差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兩地域間 政府나 民間의 消費支出 構造도 2倍以上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韓國의 政府消費支出에 해당하는 項目이 北韓의 社會的 消費支出인데 對GNP 百分比는 60年代 平均 30% 以上을 차지하며 其中 國防費가 큰 比重을 갖고 있다. 韓國과 比較할 때 60年代 後半부터 급격히 增加하여 對GNP는 물론 對政府消費支出 構成比는 거의 比較가 안되고 있다. (表3) 絶對額을 보더라도 73年 韓國이 \$4.6億인데 北韓은 \$5.8億으로서 經濟規模에 比하여 크게 構造的으로 편중되고 있음을 알겠다.

둘째로 南北韓이 다같이 意慾的인 自立的 工業化를 追求하고 있으나 그概念이 各各 다르게 理解되고 있다. 韓國은 第三次

<表 1>

南北韓 所得水準의 比較

(經常市場價格)

区 分	韓 国 ①						北 韓 ②					
	1960		1965		1970		1960		1965		1970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国民總生産(10 억 원)	246.34	100.0	805.32	100.0	2,589.26	100.0	3.25	100.0	5.10	100.0	7.50	100.0
(\$ 백 만)	(2,003)		(3,005)		(7,549)		(1,265)		(1,983)		(2,920)	
国民純生産(10 억 원)	234.06	95.0	759.41	94.3	2,429.11	93.8	3.13	96.3	4.91	96.3	7.23	96.3
(\$ 백 만)	(1,930)		(2,834)		(7,082)		(1,218)		(1,910)		(2,812)	
国民所得(10 억 원)	215.59	87.5	712.35	88.4	2,174.73	84.1	2.03	62.5	2.92	57.3	4.13	55.0
(\$ 백 만)	(1,753)		(2,658)		(6,319)		(791)		(1,137)		(1,606)	
個人所得(10 억 원)	212.39	86.2	696.16	86.4	2,133.13	82.0	1.63	50.1	2.03	40.0	2.95	39.3
(\$ 백 만)	(1,727)		(2,598)		(6,190)		(634)		(789)		(1,149)	
個人仮処分(10 억 원) 所得	204.31	82.9	670.93	83.4	1,972.27	76.2	1.59	48.8	1.96	38.4	2.86	38.1
(\$ 백 만)	(1,661)		(2,507)		(5,750)		(617)		(761)		(1,111)	

註：① 韓国の 경우 对 \$ 換算은 Parity 換算基準

② 北韓貨의 경우 1 \$ 对 2.57 원으로 計算

資料：中央情報部，南北韓經濟力比較，1974.1，第一卷.

<表 2>

南北韓의 国民總生産에 대한 支出

(경상시장 가격)

(단위: %)

区 分	韓 国			区 分	北 韓		
	1960	1965	1970		1960	1965	1970
国民總生産	100.0	100.0	100.0	国民總生産	100.0	100.0	100.0
消費支出	98.6	92.5	83.7	消費支出	79.7	78.2	67.3
民間	84.2	83.1	72.8	個人	48.8	38.4	38.1
政府	14.4	9.4	10.9	社会的消費	30.9	36.3	29.2
投資支出	10.9	15.2	27.2	(軍事支出)	(11.5)	(13.0)	(19.9)
固定投資	10.8	14.8	25.1	投資支出	21.1	20.3	29.7
在庫投資	0.1	0.3	2.1	財政投資	17.4	16.6	26.0
海外純移轉	△ 9.3	△ 7.4	△ 10.1	在庫增加	0.1	5.5	4.6
				海外純移轉	△ 0.9	△ 0.5	△ 1.7

註: △는 負의 數值임.

資料: 中央情報部, 南北韓經濟力比較, 1974.1., 第一卷.

<表 3 >

南北韓軍事支出

	韓 国 ① (10억원)			北 韓 (만 원)		
	国防支出	对 政府 消費支出比	对 GNP 構 成 比	軍事的支出	对社会的 支出費	对 GNP 構 成 比
1960	14.32	40.3	5.8	37,390	37.3	11.5
1965	29.71	39.0	3.7	66,046	35.7	13.0
1966	40.02	38.1	3.9	67,857	37.4	12.8
1967	48.82	36.9	3.8	120,026	62.2	20.1
1968	63.84	36.4	4.0	155,938	68.7	23.5
1969	81.94	36.8	3.9	156,506	64.6	23.0
1970	100.02	35.5	3.9	149,394	68.0	19.9

註 : ①国民所得 計定上の 国防 및 消費支出

資料 : 表 1 과 同

五個年計劃에서도 明示된 바와 같이 「自立的 産業構造의 確立」이 長期經濟目標이기는 하나 經濟開發의 遂行에 있어서 必要한 資本이나 賦存資源의 不足으로 이들의 海外依存의 불가피성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다. 最近 展開되고 있는 對外政策에서 보듯이 理念이

나 政治的 考慮보다는 經濟的 利益을 背景으로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을 추진하기 위하여 開放體制를 強化하고 있는 것은 當然하다. 따라서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産業構造의 高度化나 擴大가 이루어지고 自立經濟의 構築은 자연히 이에 뒤따를 것이라는 伸縮性있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自立」은 所謂 「自力更生의 原則」下에서 經濟開發戰略의 目的뿐만 아니라 그過程도 自給自足體制의 確立에 依해서 이룩한다는 意味를 갖는다. 韓國이 比較우위의 原則에 立脚하여 國際分業에의 積極的인 參與를 通하여 經濟發展과 自立을 同時에 達成하려고 하는데 比하여 北韓은 經濟發展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資源도 可能한 한 國內에서 調達한다는 것이다.

初期부터 強行한 重工業開發 우선政策이나 6個年計劃(71~76年)에 나타난 바와같이 總原料 需要의 60~70%를 國內產으로 代替하려는 意圖은 이러한 閉鎖的 經濟體制의 一面을 보여준다. 따라서 韓國과는 달리 北韓은 對外貿易을 經濟的인 利害關係보다는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와 平等 및 互惠의 原則에 따라 좀더 對外政治關係發展을 위한 수단으로 使用하고 있다.

이와같이 相反되는 對外經濟政策이 갖는 취약성은 상세한 說明을 要하지 않는다. 即 韓國經濟와 같이 對外依存도가 높은 경우 國際收支의 壓力, 重要市場의 경기 및 海外原資材의 供給動向에 따라 成長의 限界에 直面하게 된다. 反面 北韓과 같이 國內資本蓄積이나 一部 資源의 貧困에도 不拘하고 「오타키」의 急速한 成長을 追求 할 경우

經濟的 非效率性을 深化시키고 産業構造의 破行性을 더욱 助長 할 것이다.

2. 經濟政策의 目標

南北韓이 多같이 后進國으로부터 脫皮하기 위하여 意慾的인 開發計劃을 實施하고 있으나 前述한 體制나 經濟政策 基調의 相異로 因하여 政府가 追求하고 있는 經濟目標은 간혹 大조를 이룬다.

1) 南北韓이 共通的으로 높은 經濟成長率을 시도하고 있다. 60年代 年平均 GNP 成長率을 보면 韓國이 8.7% (70年 不變市場價格), 北韓이 8.3% (62年 價格)이며 特別히 工業部門은 다른 后進國들 에 比하여 急速한 成長을 하여왔다. 韓國은 製造業部門에 있어서 第一·二次 計劃期間 各各 年平均 15.1% 및 21.6%를 記錄하였다. 한편 北韓은 第一段階 (47~49) 49.9%, 第二段階 (54~56) 41.7%, 第三段階 (57~60) 38.4%, 第4段階 (61~70) 12.8%, 및 第五段階 (71~76) 14.0% (目標)의 年平均 成長率을 達成하였거나 또는 計劃하고 있다.

그러나 興味있는 현상은 韓國의 工業成長率이 加速化되고 있는 反面 北韓에서는 오히려 最近 鈍化의 추세를 보인다는 點이다. 그 理由로서 軍事支出의 加重이나 소련을 비롯한 共產圈의 對北韓 援助削減등을 들 수도 있으나 보다 根本的으로는 資本財나 技術集約 部門에서의 輸入代替産業 育成을 통한 成長이라는 無理한 政策의 遂行에서 오는 副作用에 起因한다고 하겠다. 經濟計劃의 實施

初期에는 海外援助의 뒷받침도 있고하여 閉鎖的 高度成長이 比較的 容易하였으나 工業化의 추진에 따라 資源 不足의 限界에 부딪치게 되었다.

2) 南北韓間 工業化의 過程에서 戰略의 差異를 볼 수있다.

韓國은 第一次計劃 期間中 一次産業 위주에서 製造業 中心의 産業 構造로 轉向시키고 特히 消費財의 輸入代替, 나아가 輸出特化産業의 育成에 重点을 두었다. 第二次 經濟計劃은 製造業部門의 高度成長과 함께 重化學工業의 育成發展을 集中 支援하므로써 後半期에 들어서서 綜合製鐵工場이 建設되었고, 石油化學系列産業 및 重要 機械工業의 育成등이 시도되었다. 72년부터 추진되고있는 第三次 經濟開發計劃에서는 兩次 計劃에서 노정된 弱點을 補完하여 「成長 安定 均衡의 調和」를 期하고있다. 重要 內容을 살펴보면 産業間 農工間 不均衡을 是正하고 重化學工業化에 의한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이룩하는 한편 高度成長을 지속케하고 輸出增大를 뒷받침하기 위해 工業政策은 主要 戰略産業의 開發에 力點을 두고있다. 鐵鋼 化學 機械 및 電子工業등의 育成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병행하여 經濟成長의 力을 擴大하기 위한 政策으로서 社會間接資本部門의 均衡的 發展을 期하고있다.

韓國에 비하여 工業資源의 賦存狀態가 나았던 北韓의 一貫된 經濟政策은 重工業 우선적 成長을 追求하면서 工業과 農業을 同時에 發展시킨다는 것이다. 54年以後 經濟計劃의 投資配分 內容을 보면 總投資額中 50%以上이 工業部門에 行해졌고 그中 重工業部門

은 80% 이상을 차지해왔다. 重工業 위주의 開發政策이 民族 經濟의 自立的土台, 戰略産業의 重點的 育成 및 輕工業과 農業生産의 擴大에 効率的으로 기여 할 수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71~76年間 實施되는 人民經濟發展 6個年 計劃에서는 이러한 傾向이 한층 強調되고 있다. 技術革命과 工業의 内部構造 및 原料의 自立化에 力점을 둔 6個年 計劃은 그以前 7個年 計劃과 비할 때 投資比率이 農工間 20對 80에서 22對 78로 修正되었다는 점에서 약간 均衡的이라고 하겠으나 重·輕業間은 80對 20에서 83對 17로되어 오히려 不均衡은 深化되었다. 重要한 原因으로서 이計劃이 高度의 資本集約的 産業의 開發을 통한 「工業의 自動化」, 機械工業의 發展에 의한 生産性的 提高 및 国内 原料供給 確保의 方法으로서 化學工業의 育成등을 目的으로 하고있다는 점을 들 수있다.

3) 韓國이 輕工業中心의, 그리고 北韓이 重工業 爲主의 工業成長을 계속하여 왔다면 農業部門에 있어서는 南北韓이 다같이 不均衡的 發展을 지속하여왔다. 資源이나 畜積資本의 貧困이라는 制約條件下에서 意慾的인 開發이 招來한 불가피한 結果라고 하겠다.

韓國은 이러한 弱점을 補完하기 위하여 特히 第三次 計劃에서는 새마을 事業의 支援을 통한 農漁村 所得增大 및 現代化, 農業機械化, 水産資源의 開發 및 漁業經營의 合理化등 積極的인 農漁村經濟의 綜合的인 開發을 추진하고있다. 北韓 역시 農業生産에 대하여 機械化, 水利化 및 化學化등 中央當局이 財政支援해주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千里馬運動의 例에서도 보듯이 革命思想에 呼訴하므로
서 生産의 增大를 시도하고 있다.

Ⅲ. 重要經濟發展指標의 比較

60年代 南北韓間 經濟發展 現況을 對比시킨것이 表 4~ 10이다. 經濟體制, 概念 및 使用用語등이 相異한 故로 北韓의 경우 可能的한 西方式으로 수정하였으나 正確한 對比라고는 할 수 없고 單只 一般的인 추세만을 比較하는데 意義가 있다.

<表 4> 南北韓 所得水準展望

区分	年度			区分	年度				
	1972	1976	1981		1972	1976	1981		
GNP(\$백억)	韓国(A)	9,773	16,772	36,087	1人当 GNP	韓国(A)	302	488	983
	北韓(B)	3,853	6,594	10,765		北韓(B)	262	408	595
B/A (%)		39.4	39.3	29.8	B/A (%)		85.6	83.6	60.5

註: 北韓의 경우 對弗換率은 72年 1弗對 2.37 원, 76 및 81年은 1弗對 2,257 원으로 計劃

資料: 表<1>과 同

<表 5> 南北韓産業別成長率(年平均)

(단위 %)

区 分	韓 国①	北 韓②	区 分	韓 国①	北 韓②
国民總生産	8.7	8.3	鉞 工 業	15.9	12.0
農 林 漁 業	4.4	5.4	社会間接資本및 其他서비스部門	9.2	3.0

註: ① 1961~71年, 70年 不變市場價格

② 61~70年, 62年價格, 北韓概念 国民所得

資料: 表<1>과 同

<表 6>

韓國의 産業別 國民總生産

(70年 不變市場價格)

(單位%)

区分 年度	國民總生産	農林漁業	鎂工業	製造業	社会間接資本 其他서비스	社会間接本 資	其他서비스
1960	100	41.3	12.1	10.8	46.6	6.0	40.6
1965	100	39.4	15.5	13.9	45.1	8.5	36.6
1966	100	38.9	15.9	14.5	45.2	9.1	36.1
1967	100	34.3	18.1	16.6	47.6	10.0	37.6
1968	100	31.1	20.0	18.7	48.9	11.7	37.2
1969	100	30.5	20.8	19.7	48.7	13.1	35.6
1970	100	28.0	22.8	21.6	49.2	13.3	35.9
1971	100	26.5	24.4	23.3	49.1	13.0	36.1
1972	100	25.2	26.2	25.2	48.6	12.9	35.7

資料： 韓國銀行，國民所得年報，1972年，

<表 7>

北韓의 産業別 國民總生産

(經常市場價格)

(單位%)

区分 年度	國民總生産	農業部門	工業部門	其他部門
1960	100	28.9	41.3	29.8
1965	100	24.4	51.5	24.1
1966	100	24.6	52.5	22.9
1967	100	23.0	55.0	22.0
1968	100	22.0	57.4	20.6
1969	100	22.7	55.3	22.0
1970	100	21.5	57.3	21.2
構成比 60~70	100	24.2	51.9	23.9
年平均增加率 (61~70)	8.7	5.6	12.3	4.5

資料： <表 1> 同

<表 8> 韓國의 投資率과 貯蓄率^①

(單位：%)

區分 \ 年度	60 ~ 61	62 ~ 66	67 ~ 71	72
總投資率	12.0	16.6	26.3	20.9
國民貯蓄率	2.7	6.9	14.8	15.0
民間	4.6	6.2	8.8	11.2
政府	1.9	0.7	5.9	3.8
海外貯蓄率	8.6	8.7	10.5	5.6

註：①該當期間 算術平均이며 統計上의 不一致로 因하여 總投資率과 貯蓄率의 合計는 一致하지 않음.

資料：韓國銀行，國民所得年報，1972年

<表 9> 北韓의 投資率과 蓄積率 (期間平均)

(單位：%)

區分 \ 年度	60 ~ 61	62 ~ 67	68 ~ 70
總投資率	20.8	19.8	-
蓄積率	20.0	19.8	-
財政部門	16.3	16.1	3.7
國營企業 ^①	3.7	3.7	2.3
海外貯蓄	0.8	-	-

註：①輸出差 (入超) 만을 포함.

資料：<表 1>과 同

<表 10 >

産業別 固定資本形成의 比較

韓 国 (62~71)				北 韓 (61~70)①			
区 分	金 額 (10억원)	構 成 比 (%)	年 平 均 增 加 率 (%)	区 分	金 額 (만원)	構 成 比 (%)	年 平 均 增 加 率 (%)
農 林 漁 業	321.60	8.5	14.6	農 業	171,485	16.0	11.5
鉞 工 業	841.32	22.3	20.2	工 業	610,862	57.0	15.6
社 會 間 接 資 本	1,419.92	37.4	22.2	其 他	289,433	27.0	9.8
서 ー 비 ー 스 部 門	1,190.10	31.8	21.0				
合 計	3,772.96	100.0	21.5	合 計	1,071,780	100.0	13.2

註：①資本建設投資에 해당하며 農業部門은 農村住宅投資가 포함되어 있는고로 그投資增加率은 南韓에 比하여 過大評價되어있음.

資料： 韓国銀行 및 中央情報部

統計資料는 北韓經濟에 關하여는 74年 1月 中央情報부에 의하여 出刊된 南北韓經濟力比較 (全九卷, Ⅲ級秘密), 그리고 韓国的 경우 韓国銀行과 商工部에서 發表한 刊行物에서 引用하였음을 밝혀둔다.

表 4~10에 의한 重要經濟總量 指標의 對比에서 다음 몇가지 一般的인 추세를 살필 수 있다.

1. 所得水準을 比較하면 南北韓間 增加率의 差異로 絶對額의 「값」은 한층 벌어지고 있다. 60年代 北韓의 GNP는 韓国的 40%에

未達하였으며 70年代에는 37~9% 線으로, 80年代에 가서는 20% 線으로 떨어지게 될 展望이다.

人口規模 (72年 韓國은 32,416 천名, 北韓은 14,694 천名)의 차이로 個人當 GNP의 격차는 72年度 北韓이 韓國의 85.6%로 그 간격이 좁았으나 前者의 높은 增加率 (60年代 北韓은 年平均 2.7%以上, 韓國은 1.8~2.6%)로 因하여 80年代에는 60%以下로 下落 할 것으로 보인다. (表 4)

2. 産業別 成長率이나 國民總生産을 比較하면 韓國은 開發政策 實施 初期의 農林漁業中心의 構造를 改善하기 위한 努力의 展開로 北韓에 比하여 一次産業의 生産增加率이 뒤지고 있음은 불가피 하었다고 하겠다. (表 5~7) 그러나 韓國의 鎔工業 特히 製造業의 成長率은 北韓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여 結果的으로 70年代에 들어와서는 農工業間 構造的인 改善은 이루어졌다고 보겠다. (表 6)

反面 北韓은 韓國보다는 工業化에 比較的 有利한 條件下에서 工業 生産 擴大에 가일층 박차를 加한 결과 農工部門間의 比는 70년에 이르러 約 1對 2.7로써 工業中心의 産業構造를 갖게 되었다. (表 7) 70年 南北韓間 農業의 對GNP 構成比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工業部門의 比重은 北韓이 韓國의 거의 倍에 達한다.

이러한 差異는 결국 그以外 部門의 比重에 기인하고있다. 即 韓國의 경우 점차 하락의 추세를 보이기는하나 서비스部門이 35%以上으로 壓度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社会間接資本部門의 成長은 60年代 後半 韓國에 있어서 加速化되고 있는데 70年 電力, 輸送 및 通信등에 대한 投資는 \$ 7.35 억으로서 對GNP 構成比는 13%를 상회하며 北韓의 \$ 2.5 억 (對GNP 構成比 8.3%)를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하고있다. 北韓의 産業別 國民總生産中 其他部門은 社会間接資本 以外에 軍事 서비스등 소위 生産的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構成比에 있어서 韓國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있다.

3. 南北韓이 다같이 높은 投資增加率을 유지하므로써 高度成長을 실현하였는데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실시하고 있는 北韓은 우선 順位에 따르는 重工業部門에 대한 投資를 國家豫算으로 充當하므로 韓國보다 더 効率的으로 戰略開發事業을 執行 할 수있는 立場에 있다. 投資額의 對GNP 構成比에 있어서도 72年の 경우 北韓은 31%로서 韓國의 20.9% 보다 比較的 規模가 크다. 우선 投資增加率을 보면 (表8~10) 北韓은 60年代 前半 韓國을 훨씬 증가하였던데 比하여 後半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크게 뒤지고 있다. 前述한 바와같이 海外援助의 削減이나 「貯蓄制約」의 限界에 基因한다고 하겠다. 또한가지 두드러진 差異點은 韓國에 있어서 特히 60年代 国内投資가 海外貯蓄이 크게 依存하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은 거의 国内貯蓄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 왔다는 것이다.

産業別 投資比重을 살펴보면 部門別 生産增加에서도 反映되었듯이 韓國은 輕工業, 社会間接資本, 其他 서비스 및 建設業 등에서 北韓은 特히 重工業과 農業部門에서 比較的 우세한 立場에 있다.

Ⅳ. 經濟構造의 比較

南北韓間 經濟構造의 補完性 (Complementarity) 과 競合性 (Competitiveness) 을 生産, 消費 및 貿易의 側面으로 区分하여 概括的으로 살피고자 하는데 貿易部門은 다음 節에서 說明된다. 本節에서 統計表에 나와있는 以外の 數値는 韓國 国土統一院이 提供한 資料 (科學的 統一理論 정립, 南北韓 現況比較: 經濟) 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 生産

1) 農業

北韓은 韓國에 比하여 그 絶對 生産量이 크게 뒤지고 있으며 米穀과 같은 경우 70年 정보당 生産性은 約 3 屯으로 韓國의 3.25 屯보다 낮다. 水産物 生産장비 역시 원양, 양식어업 등에 있어서 韓國이 우세한 立場에 있다.

그러나 協同的 所有制度의 強化, 技術이나 思想革命의 高취를 통한 生産性 자극 또는 60年代 韓國에 比하여 높은 投資增加率의 유지 등으로 因하여 農漁村의 機械化, 水利化 및 電氣化 等에서는 오히려 韓國을 능가하고 있다. 特히 1人當 耕地面적은 北韓이 韓國의 倍를 상회하며 70年 1人當 食糧生産은 414 kg 으로서 韓國의 237 kg 의 거의 1.8 倍에 該當한다. 生産은 自給体制의 指向으로 韓國과 거의 비슷한 構造를 갖고 있으나 特記할 것은

一部 農産物(쌀과 같은)에 있어서는 輸出까지 하고 있다는 點이다.

2. 1次「에너지」 및 鉍工業生産

1) 「에너지」供給面에서 60年代 北韓은 韓國보다 우세한 立場을 維持하여 왔다. 우선 北韓은 「에너지」源 構成面에서 国内生産, 開發이 可能的한 石炭이 圧度的인 比重을 차지하며 輸入에 依存하는 石油의 比重은 극히 미미하여 主炭從油의 政策을 固定하고 있다. 71年 石炭生産 実績을 보더라도 北韓은 3,200만 Ton으로 韓國의 1,279만 톤을 훨씬 증가하고 있다. 매장량 역시 韓半島 무연탄이나 유연탄의 거의 90%以上이 北韓에 存在되어 있다.

韓國의 경우 <表 11>에서도 보듯이 全量 輸入에 依存하는 石油의 構成比는 60年代 크게 上昇하여 왔으며 政府의 長期「에너지」對策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增加추세는 한층 加速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에너지」資源의 높은 對外輸入依存은 最近 資源波動에서도 經驗했듯이 國際收支의 壓力, 物価의 등귀등 韓國經濟가 当面한 큰 고민이라고 하겠다.

2) 重工業 建設에 必要的한 石炭, 鐵鉍石, 비철금속 및 비금속광 등 一部를 除外한 大部分 重要資源의 매장地가 北韓에 存在해 있다. 例를 들어 最近 北韓의 韓國生産量에 대한 倍數를 比較하면 鐵鉍石에 있어서 15倍, 선철 및 입철에 있어서 100倍 以上에 해당

한다. 뿐만 아니라 戰后부터 추진된 重工業 우선 政策을 遂行하기 위한 鉅業施設이나 專門機關의 設置를 통한 広範圍한 地質조사 또는 豊富한 動力資源등에 있어서 金屬, 機械工業의 發展을 위하여 韓國보다 有利한 与件을 갖고 있다.

<表11> 韓國의 1次에너지 供給構成比

(單位：無煙炭換算千%)

年 度 区 分	總 에너지	1次에너지供給構成比 (%)			
		石 油	石 炭	水 力	薪 炭
1960	17,977	7.6	27.1	1.4	63.9
1965	23,342	12.2	44.2	2.1	41.6
1966	25,664	16.7	46.3	2.4	34.6
1967	29,050	35.3	41.5	2.0	31.1
1968	30,793	34.8	34.7	1.9	28.6
1969	35,041	39.0	35.1	2.5	23.4
1970	38,288	46.0	30.9	2.1	21.0
1971	41,077	49.8	28.2	2.2	18.8
1976	64,837	61.5	27.5	3.4	7.6

註 : 무연탄 1kg의 發電量 5,300Kcal基準임.

資料 : 商工部

<表 12> 北韓의 供給「에너지」源 構成

区分	年度	单位	1960	1965	1970	1976
電力 (水力)	供給量①	억 Kwh	71.41	86.34	95.73	102.49
	Cal換算	백억 Kcal	614.1	742.5	823.3	881.4
	構成比	%	8.0	6.3	4.8	2.8
石炭	供給量②	만톤	1,146.6	1,869.2	2,810.7	5,060.0
	Cal換算	백억 Kcal	6,337.3	10,331.1	15,534.7	27,966.6
	構成比	%	82.2	87.3	89.8	90.2
油類	供給量③	만톤	70.0	70.0	85.6	200.0
	Cal換算	백억 Kcal	760.2	760.2	929.6	2,172.0
	構成比	%	9.8	6.4	5.4	700.0
總計	供給量④ (換算值)	백억 Kcal	7,711.6	11,833.8	17,287.6	31,020.0
	構成比	%	100.0	100.0	100.0	100.0

註：① 供給量(電力) = 水力 - 對中共途電分

② " (石炭) = 生産量 + 輸入量 - 輸出量

③ " (油類) = 輸入量

資料：중앙정보부

3) <表 13>에서 南北韓間 工業構造를 對比시켰다. 兩地域間 換率을 勘案한다면 正確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絶對額에 있어서 比較가 된다. 물론 GNP規模의 差異로 이에 대한 工業生産의 相對的인 構成比는 北韓에 比하여 韓國이 낮다. 特히 重工業

<表 13> 南北韓 工業構造比較

(單位: %)

區分 年 度	韓 国		北 韓		區分 年 度	韓 国		北 韓	
	重工業	輕工業	生産 財工業	消費 財工業		重工業	輕工業	生産 財工業	消費 財工業
1960	22.1	77.9	55.0	45.0	1968	39.1	60.9	54.0	46.0
1964	33.5	66.5	53.0	47.0	1969	39.8	60.2	-	-
1966	35.2	64.8	-	-	1970	38.6	61.4	-	-
1967	36.2	63.8	-	-	1971	37.4	62.6	-	-
					61~70年 平均 增加率	24.1	13.8	13.9	10.8

資料 : 상공부 및 중앙정보부

部門의 生産에 있어서는 60年代 北韓이 相對的으로나 絶對的으로 우세한 立場을 유지하여 왔다. 南北韓間 重要品目別 工業生産을 比較하기 위하여 <表 14~15>를 作成하였다. 資料의 未備로 正確한 品目別 對比는 困難하였으나 一見하여 韓國은 重工業部門에서는 電氣製品, 自動車 및 造船工業등의 輸送機器, 一部 化學製品, 肥料 및 石油製品, 輕工業部門에서는 纖維類, 靴類 및 木製品등 大部分의 경우 현저한 生産의 擴大를 이룩하여 왔다.

<表14>

韓國의 重工業生産額

(70年 不變市場 價格) (單位: 10억원)

年度 区分	1960	1971	增加倍数 70/60
紙類 및 同製品	6.1	47.5	6.39
金屬製品製造業	8.0	28.2	3.46
機械製造業	10.4	24.8	2.57
電氣製品	4.0	84.5	18.09
輸送用機器類	8.0	81.0	10.31
鐵道工業廠	1.6	8.0	4.15
化學 및 化學製品	13.0	166.4	10.45
肥料	0.3	32.6	102.64
石油 및 石炭製品	11.7	151.0	10.95
石油	-	109.4	-
土石 및 유리製品	10.2	85.4	7.14
第1次金屬製造業	14.3	96.0	6.03
重化學工業部門	85.5	764.8	7.83
製造業	387.2	2,041.7	4.47

資料: 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1972

< 表 15 >

北韓의 主要工業製品生産

部門 年度	發電量① (億KWH)	石炭① (만톤)	鋼鐵 (만톤)	工作機械 (台)	트랙터 (台)	自動車 (台)	시멘트 (만톤)	化學肥料 (만톤)	織物 (億m)	水産物① (만톤)	穀物① (만톤)
1960	91.39	1,062	64.1	3,947	3,002	3,111	228.5	56.1	1.9	47	380
1965	132.61	1,786	123.2	5,050	5,000	4,400	239.2	71.3	2.7	78	453
1970	170.00	2,300	220.0	10,385	5,000	10,000	400.0	150.0	4.0	120	660
1976	-	-	380~400	27,000	21,000	24,000	750.0	280~300	5~6	-	-

註 : 67年 目標額임.

資料 : 朝鮮中央年鑑, 各 年度.

그러나 鐵鋼, 工作機械, 트랙터 등의 重工業部門의 生産에 있어서는 크게 뒤지고 있다. 더구나 큰 問題點의 하나는 北韓의 경우 小規模의 機械나 수송기기 工場등의 施設은 그 部品을 거의 國內 供給에 依存하며 大部分 附加價值生産性이 극히 높은데 比하여 韓國의 경우 一般的으로 中間財 및 生産財를 크게 海外에 依存하고 있다는 點이다.

韓國은 第三次 五個年 經濟計劃期間中 鐵鋼, 電子, 機械, 造船 및 化學등 重化學工業을 重點的으로 育成할 計劃이며, 反面 北韓은 經濟成長의 鈍化추세로 因하여 이러한 추세가 繼續된다면 70年代末에 이르러 그 「갭」이 어느 정도는 좁혀 질 展望이다. 그러나 北韓經濟가 一定한 限界點에 到達하였다면 最近 資源波動, 國際「인플레이」의 波及, 海外경기의 后退, 對先進國資本導入의 困難 등 韓國經濟 역시 그 對外·依存性으로 부터 오는 制約에 直面하고 있다.

2. 消費構造

南北韓間 体制의 相異로 因하여 需要의 規模나 構造를 比較한다는 것은 事實 큰 意味가 없다. 原則的으로 市場價格機構에 依하여 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韓國의 경우에 比하여 北韓은 中央當局이 經濟計劃에 따라 生産, 流通 및 分配 나아가 價格까지를 獨斷적으로 決定하기 때문에 市場은 完全히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2〉에서도 보았듯이 韓國에 比하여 北韓에서는 國家支出이 壓度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어 中央當局의 選擇 如何에 따라 支出 對象이나 規模가 決定된다.

한편 個人消費支出은 最近 下落하여 對 GNP 에 百分比는 40% 미만에 該當하므로 西方式 概念인 個人가처분 所得으로 換算한다면 70年代 初 \$ 100 미만이라는 結論이 나온다. 따라서 強制 貯蓄을 除外한 北韓國民 個個人이 實際 支出할 수 있는 所得規模란 韓國과 거의 比較가 안된다. 여하간 參考的으로 南北韓 家計支出構造를 對照시켜 본 것이 〈表 16〉이다.

〈表 16〉 南北韓 家計消費支出構造①

(單位：%)

	1960		1966		1970	
	韓國	北韓	韓國	北韓	韓國	北韓
飲食費	61.7	47.3	58.7	44.7	53.9	44.0
住居費②	6.8	4.3	6.8	3.8	6.6	3.0
光熱費	4.4	2.3	5.4	3.6	4.7	4.0
被服費	10.6	30.9	9.4	31.5	11.2	33.0
雜費	16.5	15.2	19.7	15.9	23.6	16.0
合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① 韓國은 70年 不變市場價格, 北韓은 經常價格基準

② 家具類 購入費包含.

資料：中央情報部

一般的으로 알고 있듯이 北韓國民의 衣服 事情이 그리 좋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飲食費 다음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그곳의 厚生狀態를 짐작하겠다. 따라서 韓國에서 점증하는 雜費 역시 北韓의 그것과 質的으로 差異가 있을 것이라는 點을 쉽게 알 수 있다.

V. 對外經濟去來 및 貿易

1. 對外經濟政策의 特徵

南北韓經濟가 共通的으로 賦存資源의 貧困이라는 취약성을 갖고 있어 開發政策遂行의 限界를 多같이 느끼고 있으나 이를 打開하기 위한 對外經濟政策에 있어서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韓國은 第1次 開發計劃의 추진, 그리고 美國의 無償援助의 協助와 거의 同時을 같이하여 輸出을 통한 成長이라는 積極的인 開放政策을 展開하기 始作하였다.

그 結果 60年代 年平均 40%라는 높은 輸出增大를 이룩하였으며 重要 勞動集約的 輕工業部門에서 輸入代替, 나아가 輸出産業이 育成되었음은 물론 工業化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韓國은 GATT에 加入하여 比較우위에 立脚한 世界貿易의 自由化를 통한 國際分業의 促進에 積極 參與하고 있으며 從前에 西方 諸國에만 限定시켰던 貿易對象國을 이제는 中立國, 나아가 共產諸國에로 까지 擴大시키고 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北韓에서는 貿易이 中央當局에 의하여 經濟計劃의 指針에 따라 行해지며 比較우위의 原則과는 相關없이 輸入은 이 計劃의 遂行에 必要한 原資材나 施設材의 導入에 局限되며 輸出은 이를 위한 支私手段으로 使用된다. 또 貿易은 社會主義國家, 中立國 및 資本主義國家 등으로 그 對象을 区分하여 政治的인 考慮를 參酌하여 行해지고 있다. 그 去來形態에 있어서도 韓國과는

달리 双務主義, 輸出入均衡原則을 따르며 共產諸國과는 清算計定方式에 의하여, 그리고 非共產諸國과는 硬貨로 결제한다.

2. 貿易政策의 長短点

韓國이 開放體制, 北韓이 「오타키」체제의 指向에 따르는 長短点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韓國이 北韓에 比하여 60年代 높은 經濟成長率을 實現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높은 輸出增大率을 達成할 수 있었다는데 主로 起因한다. <表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增加率의 顯격한 差異는 輸出絶對額에 있어서 南北韓間 약 3倍 以上の 差를 나타내고 있다.

2) 韓國의 경우 急速한 輸出의 伸長은 이에 못지 않는 輸入의 增大를 招來하여 그만큼 國際收支의 圧迫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表18> 北韓이 貿易收支의 均衡을 보이고 있는데 反하여 韓國은 심각한 入超現象을 免치 못하고 있는데 最近까지 約 \$ 10억에 該當하는 赤字幅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3) 또한 急速한 輸出擴大는 그만큼 輸出産業에 所要되는 原資材를 海外輸入에 依存케 하는데 이는 外貨稼得이나 国内産業構造의 高度化라는 点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4) 北韓의 20~25%에 比하여 韓國 73年 70%라는 높은 貿易依存度를 갖고 있다. 이는 韓國經濟가 海外경기, 特히, 偏重된 數個의 輸出對象地域의 경기나 貿易政策의 動向에 영향을 받게 됨

을 意味한다. 最近 韓國經濟가 当面한 問題中의 하나이다.

<表 17 >

南北韓 輸出規模의 比較

(單位 : 1,000불)

年度	韓國의 輸出 (A)		北韓의 輸出 (B)		(B) / (A) %
	金額	增加率	金額	增加率	
1961	42,901	32.5	143,988.0		568.7
1962	56,702	32.2	167,245.4	16.2	295.0
1963	84,368	48.8	178,274.7	6.6	211.3
1964	120,851	43.2	194,729.3	9.2	161.1
1965	180,450	49.3	193,709.5	△ 0.5	107.3
1966	255,751	41.7	207,720.0	7.2	81.2
1967	358,592	40.2	222,743.7	7.2	62.1
1968	500,408	39.5	252,449.5	13.3	50.4
1969	702,811	40.4	299,846.6	18.8	42.7
1970	1,003,808	42.8	330,161.4	10.1	32.9
1971	1,352,037	34.7	-	-	-
1972	1,806,963	33.7	-	-	-
		(41.3) ²⁾	-	(9.8) ³⁾	-

註 : 1) 韓國은 결계기준, 北韓은 통관기준 (상대국)

2) 1962~71 복리년평균

3) 1961~70 복리년평균

資料 : 商工部 및 中央情報部

< 表 18 >

南北韓 輸入規模의 比較

(單位 : 1,000\$)

年度	韓國의 輸入 (A)		北韓의 輸入 (B)		(B)/(A) %
	金 額	增加率	金 額	增加率	
1961	316,142	△ 8.0	152,918.5		48.3
1962	421,782	33.4	164,804.4	7.8	39.1
1963	560,273	32.8	172,206.3	4.5	46.9
1964	404,351	△ 27.8	189,462.3	10.0	46.9
1965	463,442	14.6	204,447.3	7.9	44.1
1966	716,441	54.6	206,300.1	0.9	28.8
1967	996,246	39.1	210,981.0	2.3	21.2
1968	1,468,166	47.4	300,510.8	42.4	20.5
1969	1,823,611	24.2	385,108.0	28.2	21.1
1970	1,983,973	8.8	377,774.8	△ 1.4	19.1
1971	2,394,320	20.7			
		(24.8) ²⁾		(11.4) ³⁾	

註 : 1) 통관기준 北韓은 대상국 통관기준이며 △는 負의 數值임.

2) 1962~1971년 복리년평균

3) 1961~1970년 복리년평균

資料 : < 表 17 > 과 同

3. 国別貿易構造

南北韓 国別貿易構造의 共通的인 特徵을 든다면 그 対象国이 政治的인 理由나 經濟協力關係로 因하여 一定国에 편중되어 있다는 点이다. 韓國이 美国 및 日本과의 輸出入이 總貿易의 70% 以上을 차지하는데 反하여 北韓은 蘇聯 및 中共과 거의 同比의 貿易을 行하고 있다. 韓國이 아직까지 共產國과 貿易을 開始하지 않고 있으나 北韓은 日本이나 一部 西歐諸国과 비록 小規模이기는 하나 去來가 이루어져 왔다.

北韓과는 对照的으로 北韓은 对相国別로 年度에 따라 貿易의 기 북이 심한데 그 重要한 原因으로서 中 蘇紛争, 對外路線에 따르는 共產諸國의 对北韓 經濟協力 또는 重工業 우선 政策의 遂行過程에 서 所要되는 財源調達의 必要性 등을 들 수 있다. 特히 貿易規模 는 最近 增加推勢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7個年 計劃 그리고 뒤 이어 實施된 6個年 計劃期間中 農業部門에서 化学化 機械化 및 水利化등을 통한 生産性的 提高나 工業部門에서의 技術의 落后性, 生産施設의 老朽化등으로 因하여 輸入需要가 急激히 增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共產國과는 물론 先進資本主義諸國과의 貿易 이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4. 商品別 貿易構造

1) 輸 出

우선 SITC 類別 輸出構造를 살펴보면 <表 19~20> 과 같은데 60年代 韓國의 輸出은 顯著한 變化를 거쳐 70年代 初에 와서는 完製品의 構成比가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輸出構造는 큰 變動을 보이지 않았으며 工產品은 總輸出에서 꾸준히 6~70%를 차지하여 왔다.

<表 19> 韓國의 商品類別 輸出構成

(單位 : %)

商品類別 年度	食료품 및 산품	음료및 연 초	비식용 원 료	광물성 연료및 윤활유	동식물 성유지	화 학 제 품	원료별 제 품	기계류 및 반동 기기류	잡제품	미분류	
1966	100.0	16.5	2.8	18.66	0.6	0.1	0.3	33.6	3.8	23.6	0.1
1967	100.0	11.8	2.2	18.1	0.6	0.03	0.7	31.7	4.4	30.4	0.1
1968	100.0	9.8	1.9	13.5	0.5	0.02	0.7	31.5	5.4	36.7	0.04
1969	100.0	8.1	2.4	11.7	0.8	0.01	1.6	27.9	8.5	38.9	0.04
1970	100.0	7.8	1.7	12.0	1.0	0.007	1.4	26.4	7.4	42.2	0.04
1971	100.0	6.5	1.4	8.9	1.1	0.007	1.4	30.8	8.2	41.7	0.03
1972	100.0	6.6	0.9	7.3	1.1	0.02	2.2	31.7	10.6	39.6	0.04

資料 : 商工部

<表 20>

北韓의 商品類別 輸出

(單位: 1,000\$)

區 分	年 度	1968	1969	1970
		構 成 比 (%)	構 成 比 (%)	構 成 比 (%)
식료품 및 산동물		11.4	13.1	10.8
음료 및 연초		3.8	4.0	3.8
비식용 원료		16.1	18.7	20.9
광물성원료 및 운환유		0.8	0.4	0.6
동식물성 유지		0.0	0.0	0.0
화 학 제 품		3.3	2.0	1.1
원료별 제 품		54.0	39.7	41.4
기계류 및 운반용기기류		2.2	3.7	3.7
잡 제 품		7.0	9.1	9.8
미 분 류		1.4	9.3	7.9
총 계		100.0	100.0	100.0

註 : 1) 北韓의 貿易相對國中 39 個國과의 貿易統計를 再分類한
 것임. (共產圈 國家中에서는 蘇聯, 체코 2 個國만 包
 함됨)

資料 : 中央情報部

南北韓間 共通的인 特徵은 輸出이 一定한 品目에 集中되어 있다
 는 것이다. 卽 韓國의 輸出이 原料別製品과 雜製品에 편중되어
 있는가 하면 北韓은 原料別製品, 食品用原料 및 雜製品등을 주로
 輸出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 絶對規模에 있어서 比較가 될 수는
 없으나 韓國輸出의 거의 70%가 纖維類, 木製品, 신발류, 전자제품등
 10個内外의 勞動集約的 商品으로 構成되어 있어 先進國의 輸入制
 限 對象으로 어느 정도 그 擴大에 支限을 받고 있는데 比하여
 北韓의 輸出은 比較的 多樣化되어 있다. 그러나 工程內容을 본다면
 韓國輸出商品이 完製品인데 反하여 北韓의 輸出商品은 一部를
 除外한다면 一次加工의 狀態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特히
 韓國은 重化學工業製品의 範圍를 急激히 擴大시켜 나가고 있으나
 北韓의 輸出構造는 큰 變動이 없다.

參考로 最近 南北韓間 重要輸出商品의 順序는 아래와 같다.

韓國(72~73年 品目別 年平均 \$ 1천만 以上):

- ① 被服類 ② 合板 ③ 電子製品 ④ 세타
- ⑤ 織物類 ⑥ 綿製品 ⑦ 鐵鋼板 ⑧ 참치
- ⑨ 가발 ⑩ 신발類

北韓 :

65年

\$ 1,000 만 以上

① 鐵鋼製品

\$ 500 만 以上

① 마그네사, 크링카 ② 銑鉄

③ 아연 ④ 잎담배 ⑤ 쌀

⑥ 鉛

\$ 100 만 以上

① 사과 ② 마그네사이트

③ 철광 ④ 아연광 ⑤ 화학제품

⑥ 高圧礮子 ⑦ 중정석 ⑧ 어개류

⑨ 시멘트 ⑩ 衣類

70年

\$ 1,000 만 以上

① 鐵鋼製品 ② 衣類 ③ 마그네사,

크링카 ④ 쌀

\$ 500 만 以上

① 鉛 ② 銑鉄 ③ 木材

④ 아연광 ⑤ 시멘트 ⑥ 잎담배

⑦ 공작기계 ⑧ 아연 ⑨ 철광

⑩ 사과

\$ 100 만 以上

① 도자기류 ② 어개류 ③ 銀

④ 化學製品 ⑤ 직물, 섬유제품

⑥ 생사 ⑦ 酒類 ⑧ 중정석

⑨ 신발류 ⑩ 高圧礮子

2) 輸 入

南北韓間 輸入構造의 相異는 우선 그 用途別 輸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表 21-22> 우선 資本財와 原資材 및 消費財間의 構成比에 있어서 두드러진 差異를 볼 수 있다. 北韓에 比하여 原資材(넓은 意味에 있어서)의 賦存이 貧弱한 韓國은 海外輸入에 크게 依存하는데 重要資源에 있어서 輸入依存度는

50~100%에 위치한다. 특히 輸出「라이브」政策으로 因하여 輸出用 原資材 導入規模는 急激히 增加하여 왔다.

<表 21> 韓國의 用途別 輸入実績

(單位: 百萬\$)

區分 \ 年度	1961(A)	1964	1967	1970(B)	(B)/(A) 배수
총 계	100.0	100.0	100.0	100.0	6.3
자 본 재	13.4	17.2	31.1	29.7	14.0
원 자재 및 소비재	86.6	82.8	68.9	70.3	5.1
수출용원 자재		1.7	13.6	19.5	56.0 (64~70)
내수용원 자재 및 소비재	86.6	81.1	55.3	50.8	3.7 (64~70)

資料: 商工部

<表 22> 北韓의 用途別 輸入実績

(單位: 1,000\$)

區分 \ 年度	1961(A)	1964	1967(B)	1970	(B)/(A) 배수
자 본 재 (%)	23.0	34.6	26.2	44.3	4.8
원 자재 및 소비재 (%)	77.0	65.4	73.8	55.7	1.8
총 계 (%)	100.0	100.0	100.0	100.0	2.5

資料: 中央情報部

한편 北韓은 이러한 壓力은 받지 않았으나 所謂 基本建設投資政策의 強行은 施設財의 海外輸入을 加重시키고 있다.

SITC 類別 南北韓의 輸入構造는 <表 23>과 같은데 편의상 70 年の 경우만을 對比시켰다. 構造的인 變動을 살펴보면 韓국의 경우 化學製品의 構成比가 60年代 前半의 20% 以上에서 後半에는 8~9%

<表 23> 南北韓 商品類別 輸入比較

(1970年)

(單位 : 1,000 \$)

商品類別 \ 區 分	韓 國 構 成 比 (%)	北 韓 構 成 比 (%)
食료품 및 산동물	16.11	10.0
음료 및 연초	0.1	0.0
비식용 원료	20.4	7.2
광물성연료 및 윤활유	6.9	18.1
동식물성유지	0.8	1.3
화 학 제 품	8.3	3.5
원료 별 제 품	15.4	9.1
기계류 및 운반용기기류	29.7	47.8
잡 제 품	2.4	3.0
미 분 류		
합 계	100.0	100.0

資料 : <表 17>과 同.

로 下落하였으나 기기류(운반용 기기를 포함하는)는 反對로 同期間 15~20% 線에서 約 20%로 上昇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그 規模에 있어서 差異는 있으나 北韓에 있어서도 同一하다. 即 68~70年間 化学製品이 5%에서 3%로 기기류가 30%에서 45% 각각 變動을 나타냈다.

用途別 輸入構造는 品目別 構造에 그대로 反映되고 있는데 韓國에 있어서는 비식용원료를 비롯한 原資材와 기기류가 北韓에 있어서는 기기류와 광물성 윤활유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最近 南北韓間 重要輸入商品을 對比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最近 年平均 \$ 1,000 만以上) : ①소맥 ②쌀 ③옥수수

④원당 ⑤생고무 ⑥원목 ⑦펄프 ⑧원모 ⑨원면 ⑩철광석 ⑪고철

⑫동광석 및 동의설 ⑬원유 및 석유제품 ⑭인조섬유 및 同屑

⑮鐵鋼屑 ⑯의약품 ⑰化学肥料 ⑱플라스틱 材料 및 人造樹脂

⑲철라멘트糸 ⑳시멘트 ㉑鋼板 ㉒建設用金屬製品 ㉓증기기관 및

同附品 ㉔내연기관 및 同附品 ㉕금속공작기계 ㉖가공기계, 섬유기

계 및 同附品 ㉗가열장치 및 냉동장치 ㉘전기기구 ㉙철도차량

㉚선박

北韓 :

65年

\$ 1,000 만 이상

①석유제품 ②공장설비

③소맥(粉)

\$ 500 만 이상

①원면 鐵鋼製品 ③옥수수

④合金鉄

\$ 100 만 이상

①타이어 및 튜브 ②선박

③自動車(部品) ④織物纖維類

및 그 製品 ⑤화학비료

⑥금속관류 ⑦合性(生)고무

⑧베아링

70年

\$ 1,000 만 이상

①공장설비 ②석유제품

③소맥 ④석탄 및 코크스

\$ 500 만 이상

①원면 ②織物纖維糸 및 그

製品 ③ 纖維機械

\$ 100 만 이상

①合成고무 ②타이어 및 튜브

③工具類 ④自動車(部品)

⑤설탕 ⑥合金鉄 ⑦가정용비누

⑧식물섬유 ⑨紙類 ⑩베아링

⑪내연기관 ⑫금속공작기계

⑬철강제품 ⑭發電機(部品)

5. 經濟協力

1) 南北韓은 高度의 成長率을 維持하기 위하여 共通的으로 海外資本에 크게 依存하여 왔는데 이제 總量規模와 業種別 導入 內容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은 59~71年間 到着基準으로 總 \$ 2,745.3 백만에 該當하

는 外資를 導入하였는데 國別 構成比를 보면 美國과 日本이 圧倒的인 比重(各各 44.5% 및 23.9%)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西獨(7.9%), 英國(3.8%), 國際機構(3.8%) 및 其他(16.1%)의 順序이다. 國別 形態別로 보면 美國이 提供한 外資의 44.1%는 公公차관, 46.7%는 商業차관이었으나 日本과 西獨의 경우 商業차관의 比重은 各々 65% 및 83.5%이었다. 同期間 業種別 外資 導入 內容을 比較하면 總 \$ 2,745.3 백만中 農林水産業部門에 4.1%, 鉦工業部門에 45.9%, 그리고 社會間接資本部門에 50%가 各各 投資되었다.

한편 對北韓 共產圈援助는 總 \$ 2,043.4 백만에 達하나 그中 \$ 1,653.9 백만이 無償援助로 構成되어 있다. 無償援助는 그 大部分이 50~60年間 戰后 복구事業을 위하여 行해졌으며 有償援助(차관)(\$ 389.2 백만)는 주로 61~70年間에 行해졌다.

國別 援助內容을 살피면 蘇聯이 거의 50%로 絶對的인 比重을 갖고 있는데 有償援助 \$ 231.7 백만中 거의 半이상이 北韓의 對 小貿易 赤字로 因하여 發生하였다. 이는 共產諸國 援助의 獨特한 形態로 그 償還 역시 貿易上의 黒字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蘇聯의 援助는 主로 工場設備나 工作機械部門에 行해졌는데 그 規模는 60年代 後半 對小關係의 惡化로 크게 삭감되었으나 70年 「71~75年間 經濟 및 技術協力에 관한 協定」의 締結로 拡大될 것으로 전해진다.

中共의 对北韓 援助는 53年 以後 2次에 걸쳐 締結된 4年 單位の 協定에 依拠하고 있으며 그 規模는 60年代 前半까지 總 \$ 613,5 백만에 達하는데 大部分 無償援助로 構成되어 있다. 援助의 對象은 主로 輕工業部門에 局限하였으나 最近 重工業部門으로 擴大 되고 있다.

그以外 東歐諸國의 对北韓 援助規模를 보면 (戰后~ 70年까지) 東獨이 \$ 136,4 백만, 「체코」가 \$ 200 백만, 헝가리가 \$ 392 백만 등의 順位이다.

2) 以上 南北韓이 多같이 海外資本을 大量 導入한 것은 事實이 나 韓國의 경우 前記한 60年代 外國資本의 全額이 有償인데 比하여 北韓은 50年代 以後 共產圈援助의 80% 以上이 無償이므로 兩地域間 比較가 안된다. 따라서 韓國은 元利金償還의 負擔이 加重되어 最近 國際收支에 壓迫을 크게 加하고 있으나 北韓은 이러한 고민이 거의 없다.

Ⅵ. 經濟統合에 따르는 利点과 問題点

1. 政治的 利点

南北韓 統一을 前提로 할 때 經濟統合은 相異한 体制를 接近 내지는 同化시키므로서 重要한 第一段階的인 役割을 할 것으로 본다. 또한 統一이 어렵다 하더라도 韓國에 의한 經濟統合의 提案은 對北韓, 나아가서 對外政策의 遂行에 있어서 積極的인 立場을 強化시킬 것이다.

2. 經濟的 利益

南北韓 經濟統合의 가장 큰 利点은 經濟的 利益을 取하자는데 있으며 이는 統一 可能性 如何를 不問하고 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現在의 分断狀態가 지속되며 또 政治, 軍事的 安定이 保障된다는 確實한 가정이 있다면 制限的이기는 하겠으나 오히려 經濟統合의 展望은 밝다고도 할 수 있으며 그 必要性은 한층 增大된다. 經濟統合으로 豫想되는 利益을 概括的으로 羅列하면 다음과 같다.

1) 資源配分의 效率化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南北韓이 賦存資源을 無視한 開發政策을 實施하고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經濟統合이 이루어 질 경우 比較우위에 입각한 産業部門에 特化하므로써 좀더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期 할 수 있다.

韓國은 農水産, 纖維를 비롯한 輕工業, 化学, 電子工業등 一部 重工業部門에서 北韓보다 우수한 立場에 있으며 技術條件도 낫다고

본다.北韓은 工業資源, 鉄鋼, 金屬工業등 主로 重工業部門에서 우세하며 또 이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고있다. 그러나 韓國은 開放體制에 의하여 北韓은 「오타키」적 體制에 의하여 「自立的 工業化」를 追求하고있어 수단은 다르나 同一한 目標를 指向하고 있다고 하겠다. 분단된 상태아래서 自給體制의 確立을 위한 이러한 政策의 지속은 결국 경제적 非效率性을 한층 深化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經濟的 交流가 빨리 實現될 수록 資源配分 狀態는 改善될 것이고 長期的으로 現在 南北韓이 當面한 成長에 있어서의 制約이 어느정도 解消되므로서 工業化는 效率的으로 促進되리라고 생각한다.

2) 輸入代替 및 輸出産業의 育成

北韓의 경우 企業 單位當 生産能力, 費用條件 또는 需要構造 등을 알 수 없었으나 總體的인 資源賦存狀態, 開發政策의 方向 그리고 貿易構造의 추이를 比較할 때 韓國은 纖維, 合板, 衫襪類 및 電子製品, 그리고 앞으로는 造船이나 化學등의 産業에 特化하는 (또는 하려는) 傾向을 보았다. 反面 北韓은 철강, 金屬, 一部 輕工業製品 및 半製品을 주로 生産 輸出하고 있다. 織物類, 機械類, 金屬製品 또는 一部 食料品에 있어서 南北韓間 어느정도 경쟁을 보이고 있어 生産構造는 競合的이라고 하겠다.

工業用 原資材에 있어서는 韓國이 輸入에 크게 依存하고 있어 南北韓間 極히 補完的이라고 본다. 그 밖에 共通的으로 一部 運送機器를 包含하는 機器類 輸入比重이 絶對的으로 점증하고 있다.

原論에 입각할 때 産業構造가 補完的이거나 去來実績이 미미한 國家間 經濟統合이 이루어 질 때 「貿易의 轉換」, 그리고 反對의 경우 「貿易의 創出」效果가 發生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結局 當事國間 福祉의 減少 또는 增大와도 直結된다.

그러나 開發政策에 力點을 두는 後進國들의 경우는 利益과 費用의 評價를 通한 「開發創出」이나 「開發轉換」의 效果를 좀더 重視하여야 할 것이다. 經濟統合이 이루어 질 경우 南北韓間 輸入代替産業이나 輸出産業의 兩地域間 配分選定은 後述하는 「合意的인 國際分業의 原則」에 따라서, 그리고 資本이나 勞動等 生産要素의 移動도 部分的으로 自由化된다는 點을 감안하여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産業部門에 따라 南北韓이 다같이 開發의 추진과정에서 어떤 損失을 보게 되기는 하겠으나 總體的으로 評價할 때 그리고 長期的인 次元에서는 「開發創出」에 따르는 利得을 더 取할 수 있을 것이다.

3) 規模의 經濟實現

經濟統合의 추진은 消費市場의 擴大를 가져오고 生産의 增大에 따라 生産費를 절하 할 수 있는 기업들은 最適 施設規模를 扨할 수 있는 可能性이 생긴다. 計劃經濟體制에 입각하고있는 北韓에서의 消費市場은 西方諸國이나 韓國과는 完全히 다른 意味를 갖으며 完全히 中央當局의 자의에 의하여 그形態가 決定되나 여하간 市場統合이 需要의 擴大를 가져오는 것만은 事實이다.

韓國의 경우 輸出産業에 있어서조차 많은 企業들에 의하여 生産

되는 商品이 國際競爭力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內需에 비하여 큰 施設能力을 保有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또 第三次 五個年 計劃이 시도하고 있는 造船, 化學, 機械工業의 生産目標가 主로 海外市場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 할 必要가 없다. 北韓의 産業도 部門에 따라서 비슷한 立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統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利點의 하나는 規模의 경제를 이룩하므로써 生産費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4) 경쟁력의 強化

市場의 統合과 함께 企業의 경쟁력이 增進되겠고 이에 따라 政府의 支援策을 緩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財源을 效率의인 投資에 使用 할 수 있게된다.

5) 市場의 確保

現在 韓國 經濟, 輸出産業이 當面한 問題의 하나는 世界的인 不景氣로 인한 海外需要의 減退나 重要先進國의 輸入制限政策이다. 따라서 市場의 擴大는 이러한 「非常」에 對備하며 그만큼 海外需要에 대한 國內經濟의 依存을 緩和시킬 것이다. 韓國經濟의 취약점인 구조적인 對外依存度도 낮추는 結果를 가져옴은 물론이다.

3. 經濟統合에 따르는 問題點

이상의 原論的인 經濟的 利益에도 不拘하고 南北韓間 經濟統合을 추진함에는 實제적으로 許多한 問題가 따를 것이다. 其中 重要한 몇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經濟統合의 政治性

韓國은 特別히 70年代에 들어서서 부터 政經分離 原則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對外政策의 수행과정에서 經濟를 한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即 경제력이 우세하다고 確信하는 한 北韓이 經濟統合의 제의를 受諾 할 可能性이 크며, 이 경우 이를 共產化 統一을 위한 한 方法으로 利用할 公산이크다. 물론 韓國의 經濟的 与件이 낮다고 하더라도 양보의 범위 如何에 따라 北韓側이 同意할 여지도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經濟統合의 適切한 時期는 後者의 경우 아니면 적어도 南北韓間 경제력이 비교 될 수 있는 때라고 생각된다. 韓國은 北韓과는 달리 体制上 經濟統合의 「中立性」은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하여 一定한 실질적인 경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南北韓間 經濟力을 비교한다는 自体가 相對的인 概念이고 또 正確을 期할 수도 없다. 그러나 本研究를 通하여 살폈거나와 韓國이 現在 처해있는 경제적 여건이 比較 部門에 따라서는 北韓보다 우세하다고 생각된다. 對外依存度가 높고 또 一部 重工業部門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다는 弱點이 있기는 하나 前者가 統合을 阻害하는 要因은 될 수 없으며 또 第三次 五個年計劃의 수행과 함께 後者의 短點도 補完될 것이다. 나아가 資源의 海外依存과 같은 問題는 오히려 經濟統合과 함께 一部解消될 수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全産業部門에서 절대 우위의인 立長에 있을 수도 없거
니와 또 그러한 必要도 없으나 要는 重要한 戰略産業에 있어서만
北韓보다 이러한 位置를 차지하는 것이 統合體制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保障이 될 것이다.

北韓은 50年代 以後「오타키」적 無理한 重工業化일변도의 政策
을 強行하므로써 經濟擴張에 있어서 一種의 限界에 到來하였으며
계속 成長을 유지하려면 經濟隨力이나 貿易을 擴大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있다. 結論적으로 北韓의 六個年 計劃과 韓國의 五
個年 計劃이 同時に 終了되는 76년이 經濟統合을 시도할 時期가
아닌가 하며 韓國이 충분한 설득을 통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이問
題를 다각도에서 고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經濟體制의 相異

前述한 經濟統合의 效果는 事實 市場經濟 體制를 扶하고 있
는 國家들間을 想定한 것이고 資本主義國家와 計劃經濟 國家間的
經濟統合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體制의 接近 내지는 同化가 우선
하여야 함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이는 政治, 理念의 調和를
意味할 수도 있어 一見不可能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東歐諸
國이 西方諸國과 大規模의 貿易을 行하고 있는 것을 보면 技術의
인 그리고 단계적인 調整에 따라 相異한 體制로부터오는 短点들은
어느정도 修正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代表的인 例가 價格體系의 差異라고 하겠다. 價格은 資本
主義體制 下에서는 市場의 自由로운 需給에 의하여 그리고 計劃經

制下에서는 中央計劃当局에 의하여 各各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相反되는 價格体系가 貿易에 장애를 가져오는 絶對的인 要因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東西獨間 樹立된 價格水準調節制度와 같은 수단으로 이를 克服할 수 있다고 본다.

3) 經濟目標의 重複

産業構造가 競争的일 수록 經濟的 效率性的 提高등 經濟統合에 따르는 利益은 增大된다. 그러나 經濟統合이 經濟開發政策의 수행 自体에 차질을 가져 온다면 이는 큰 意義가 없으며 後進國 대부분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있다. 南北韓이 最近 實施하고 있는 開發計劃의 目標가 다같이 重點的으로 重工業(韓國의 경우 重化学工業)의 育成에 두어지고 있으나 工産業基盤은 아직까지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있다. 따라서 後進國間 經濟統合의 추진에 있어서 合意的인 國際分業原則의 採択이 불가피한 所以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Ⅶ. 經濟統合의 戰略에 관한 提案

1) 合意的 國際分業 原則

南北韓間 經濟統合의 必要性이 充分히 認識되고 또 이를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實質的인 保障에 關한 合意가 이루어진다면 다음으로 重要한 것은 雙方間 分業의 組織이라고 하겠다. 南北韓間 根本的인 經濟利害와 直結되는 이러한 類의 合意的인 分業은 利益의 配分이 衡平을 이루도록 經濟的 目標과 資源의 賦存 狀態등을 고려하여 產業部門보다는 製品部門別로 細部的인 協定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2) 段階別, 部門別 接近

이제껏 經濟交流도 없었던 南北韓間 經濟統合이 全經濟分野에 걸쳐 同時에 그리고 一時에 추진될 수는 없다. 따라서 部門別 단계별로 統合計劃이 進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非戰略的 商品 貿易

第一段階로서 商品交流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現 條件으로 보아 우선 非戰略部門 그리고 南北韓이 서로로부터 必要로하는 商品에 局限시켜야 한다. 東西獨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미 47年 1 月に 兩獨間 貿易의 法的 根柢를 이루고있는 「민넨」協定을 締結하였고, 49年 10月 「프랑크 프루트」協定, 60年 8月 伯林協定等으로 政治的 環境과는 獨立的으로 交易增大를 期 해 왔다.

東西方交易이나 東西獨間 貿易이 그러했듯이 協定의 締結이 불가

피하며 이協定文에는 期間別 輸出入品目 「리스트」 및 輸出入額 등이 表示되어야하며 결제는 雙方 中央銀行內에 設置된 清算計定 方式에 의한다. 交易對象商品은 內國民대우를 適用하여 關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며 貿易의 增大를 기하기 위하여 兩側의 事情이 許諾하는 범위內에서 一定한 信用限度額 (Swing Credit) 를 設定할 수 있으며 그超過分에 대한 결제는 初期에는 金이나 交換性通貨로 行해될 수 있다.

第一段階는 約 一年의 交渉過程을 거친後 出發한다고 가정한다면 76年中부터는 實施 될 수있다고 본다.

② 部門別 統合

第一段階가 成功的으로 遂行된다면 곧 第二段階로 진입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統合의 一次的인 戰略으로서 部門別 統合을 시도할 必要가 있다. 韓半島의 安保問題도 고려하여 그對象으로서 石炭, 강철과 같은 重공업부분을 선정할 것을 제의한다.

重武器 生産財이기도한 石炭, 鋼鐵製品의 生産, 流通 및 消費등을 共同管理하는 一種의 「풀」 (Pool) 을 形成하므로서 經濟的인 취지 以外에도 平和維持라는 政治, 軍事的 目的도 할 수 있다.

이러한 石炭, 鋼鐵部門 統合은 南北韓이 가장 민감한 重工業 分野에서의 合意라는 点에서 장차 그범위의 擴大 可能性을 시사하는 실험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③ 段階別 統合

合意的 分業을 추진하는 한 수단으로서 또 통합에 따르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단계별 統合方法을 採해야 한다. 卽 對象別 長短期的 日程表를 作成할 必要가 있으며 傳統的인 方法보다는 南北韓의 經濟的 條件을 고려 할 때 第1節에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生産物이나 生産要素 移動의 自由化도 同時에 期하는 편이 有利하다고 본다.

第一, 二단계가 成功的으로 遂行되면 곧이어 第三段階에 들어가는 데 이 期間부터는 점차 南北韓間 生産物, 生産要素 移動의 幅을 擴大시켜 나가게 된다. 第三段階부터는 兩市場의 統合, 卽 이제껏 「쿼터」制를 폐지하여 점진적으로 移動의 自由化도 시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每年 期間別 日程表에 따르는 交流 또는 移動의 自由化 對象의 선정이며 南北韓間 經濟的 條件을 參酌하여 결정되겠다.

第四段階 부터는 本格的인 統合事業이 實現되는 데 그 重要內容은 南北韓間 經濟政策의 調整 내지는 統一 그리고 對外經濟政策의 遂行에 있어서 共同步調이다.

이상 綜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段 階	出 發 年 度
第 一 段 階 (非戰略商品의 交流)	: 1976年以後
第 二 段 階 (石炭, 鋼鐵部門統合)	: 1979年
第 三 段 階 (一部商品 및 生産要素의 自由移動)	: 1982年以後
第 四 段 階 (本格的인 經濟統合의 推進)	: 1985年以後

4) 統合機關의 樹立

統合事業의 推進과 함께 이를 効率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管理委員會의 樹立이 要請되며 이委員會는 脫政治的인 그리고 實務 經驗이 있는 經濟專門家들로서 南北韓 政府의 同意下에 構成되어야 한다. 管理委員會는 兩側 經濟部處에서 파견된 代表로서 構成된 咨詢委員會와 定期的인 協議를 거쳐 經濟統合을 위한 重要的 政策들을 取할 수 있다. 統合의 窮極적인 취지 여하에 따라 南北韓 關係 當局은 管理委員會의 權限範圍를 定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5) 經濟統合對象會員國의 範圍

南北韓 經濟統合이 一定한 程度에 오른후 아니면 그 以前이 라도 다른 南北亞 國家의 參與를 고려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그理由는 前述한 經濟的 利益을 擴大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世 力均衡을 이루어 政治的인 安定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